

# 22일 유·초·중·고 ‘전면등교’... “현실적 방역 동반돼야”

학생감염 증가, 백신접종률 낮아  
교육부, 3주간 학교별 준비기간  
내년 3월 ‘완전한 일상회복’ 계획  
교사들 업무부담 과다 우려 제기  
‘위드 코로나’ 새 방역지침 절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뉴스1

이달 1일부터 3주간 학교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오는 22일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더 방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교사들의 과도한 방역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 백신 접종 저조·학생감염 증가... 교육 일상회복은 ‘수능 이후’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들은 11월1일부터 3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앞서 올해 2학기부터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면 등교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수도권 초·중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전면등교도 함께 이뤄지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교육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학교 전면등교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고 파악했다. 실제 10월 셋째 주부터 학생감염 사례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학생감염 추세는 9월 초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다 같은 달 21~27일 269명의 학생감염 사례가 발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교종이 10월 14~16일 전국 초

·중·고 교원 35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에 대해 ‘수능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로나 감염이 상당 수준 안정될 때까지 연기’ 의견도 28.1%로 나타났다.

12세~17세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전면등교를 수능 이후로 미루게 된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가 9월 26일 공개한 16~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률은 62%였고, 12~15세 학생의 예약률은 23.1%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방학을 거쳐 내년 3월 신학

기에는 완전한 학교 일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토론 수업·동아리 활동 재개... “교사들 방역 업무와 행정 책임 매몰”

이 같은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은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수능 이후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토론 수업, 동아리 활동 등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 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고, 초·중·고에서는 모둠·토의 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 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했던 가정학습일수도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2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전면 등교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걸맞은 새로운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위드 코로나에 따라 학생, 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혼란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등교만 늘린다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사들이 지금처럼 방역 업무와 행정, 책임 부담에 매몰돼서는 방역과 교육 모두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은 교육 당국과 질병당국이 전담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사는 학생 학력 저하와 격차 해소, 사회성 결여 회복을 위한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질병당국이 방역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접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배치해 주고, 교사의 방역 업무와 행정을 최소화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까지는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그치며 혼란을 불렀던 방역지침에 대해, 교육·방역 당국이 새 방역지침을 명확히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최대한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전문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확진자 발생 시, 기준과는 다른 등교, 격리, 원격 전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조속히 학교에 안내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산업계 인정 최우수·선도 대학에 ‘중앙대’

화학신소재공학부 등 3개 학부  
인력 미스매치 해소 일한 시행



중앙대 전경 /중앙대

중앙대학교가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산업계가 인정하는 ‘최우수 대학’이자 ‘선도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10월 31일 중앙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실시한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 참여한 ▲화학신소재공학부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가 모두 ‘최우수 선도’ 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중앙대는 분야별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문단위에만 주어지는 최우수선도 등급을 전부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대학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다.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대상 산업 분

개 학부는 모두 올해 평가부터 신설된 최우수선도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앞선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3개 등급으로 대학들을 평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분야별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문단위에 부여하는 최우수선도 등급을 별도로 신설했다.

중앙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2021 산학협력 EXPO’에 참여해 CAU 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며 성과 확산을 도모했다. 20일에는 문운철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1일에는 산관학 소통 포럼에 참여한 권혁인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해에도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와 기계공학부가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현진 기자

개 학부는 모두 올해 평가부터 신설된 최우수선도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앞선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3개 등급으로 대학들을 평가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분야별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문단위에 부여하는 최우수선도 등급을 별도로 신설했다.

중앙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2021 산학협력 EXPO’에 참여해 CAU 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며 성과 확산을 도모했다. 20일에는 문운철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1일에는 산관학 소통 포럼에 참여한 권혁인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중앙대는 지난해에도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와 기계공학부가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이형태 재단, 테니스장 활성화 MOU

이형태 이사장, 8000만원 상당 기부



전영재 건국대 총장과 이형태 동문이 28일 이천스포츠과학타운 실내테니스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국대

건국대학교는 이형태 테니스 아카데미재단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건국대 이천스포츠과학타운 실내테니스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28일 상호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형태 재단은 한국 테니스의 발전을 목표로 이형태 동문(영문 98)이 지난 2009년 설립한 재단으로, 그간 각종 대회유치, 아카데미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테니스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국대 테니스부 선수들을 위한 최적의 훈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국대는 설비 시설을 보수하고, 건국대 동문인 이형태 이사장은 경기장 관련 시설에 현물 약

80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천 스포츠과학타운은 건국대가 2005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6만 여평 부지에 개장한 복합스포츠단지로 육상트랙과 인조잔디 축구장, 실내테니스장,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현진 기자

## 국민대 학생들, 국가암호공모전 등 대상

암호분석경진대회 동시 수상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2021 국가암호공모전과 암호분석경진대회에서 동시에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0월 31일 국민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1 국가암호공모전 시상식에서 금융정보보안학과 백승준·조세희(지도교수 김중성) 학생들이 대상인 국가정보원장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국민대 팀 논문은 미

래 양자 환경에서 현재 통용되는 AES-256 기반 해시 함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공모전에서 국민대 학생들은 대상뿐 아니라 우수상·장려상·특별상까지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시상식에서는 한국암호포럼·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운영하는 2021 국가암호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기윤 학생은 양성과

정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태호 학생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암호포럼에서 운영하는 2021 암호동아리 지원사업에서도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부채널 분석 동아리 PEPsi가 우수 동아리 상을 수상했다. 한편, 같은 날 TTA서령부에서 열린 2021 암호분석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금융정보보안학과 한재승·이태호·임성혁(지도교수 한동국) 학생들이 대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암호분석경진대회는 암호분석 기술 발전 및 암호해독분야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국방암호특화연구센터가 주최하고 TTA서령부가 후원하는 대회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내일부터 ‘IT취업아카데미’

대양AI센터서 사흘간 진행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021년도 IT취업아카데미’를 대양AI센터에서 진행한다.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공계인력증진센터(알앤디잡)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IT직무특강과 취업박람회로 구성된다.

IT직무특강은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IT

관련 직무를 소개하는 이론수업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실습수업으로 구성된다.

4일에는 IT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가 진행된다. 취업박람회는 6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1대 1 면접과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IT취업아카데미 참여자들에게는 교육 수료증 발급, 커리어쿠폰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에서는 이외에도 공기업 준비반, 올인원(All-In-One) 알고리즘 프로그램 등 취업준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